



믿음이라는 고리

천상고 2-1 강나영

“약속, 도장, 복사, 사인.”

어릴 때부터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꼭 새끼손가락을 걸며 이 말을 하곤 했다. 진짜로 도장을 찍고, 복사를 하고, 서명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나면 약속이 지켜질 것 같았고, 또 지켜야 한다고 느꼈다.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내게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상대가 그 약속을 지키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어찌면 당연한 말이지만, 나는 그 약속에 상대와의 믿음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들은 약속이 깨지면 “약속했잖아!”라며 울음을 터트리곤 한다. 꼭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친구와의 약속 등이 깨지면 서운해지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말뿐인 약속인데 왜였을까? 약속하자면서 새끼손가락을 걸면, 나와 상대방의 사이에는 고리가 생기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고리가. 상대를 믿는 것이다. 너는 이 고리를 먼저 놓지 않을 거라고. 먼저 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 고리는 단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고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속의 전제가 믿음이라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다. 상대

를 믿어야 나도 그 고리를 놓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 고리를 놓지 않아야 상대가 나를 믿을 테니까. 약속이 깨지면, 그 고리인 믿음도 함께 깨진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약속을 잘 안 하게 된다. 한 번 놓았던, 한 번 깨졌다가 다시 붙인 고리에는 금이 남아 있으니까. 또 깨져서 상처받게 될까 봐.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어른들은 왜 약속을 잘 하지 않을까?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날 놀이터에서 사귄 친구와 “내일 또 여기서 놀자!”라며 곧 잘 약속을 해뒀고, 그게 당연했을 시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어른들도 어릴 때는 약속을 잘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냥 약속을 하지 않고 계약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말로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 난 그 이유가 어른들은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살아온 기간이 긴 만큼, 여러 가지 일을 겪어왔을 것이다. 그중에는 약속이 깨지거나, 혹은 약속을 깬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의 고리는 이미 많이 낡고, 금이 가 있어서. 함부로 약속을 했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그 고리가 깨져있을까 봐 불안해서 말뿐인 약속은 잘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겠지. ‘믿음’이라는 고리가 깨지는 걸 막으려고 ‘계약’이라는 접착제를 바르는 거겠지.

하지만 접착제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도 ‘말뿐인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말라’며 잔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는 어른들이 약속에 대해 조심히 행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본인들의 고리는 낡고 금이 가서 조심한다지만 그에 비해 새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는 왜 조심하라는 것일까? 어른들이 직접 보고 겪은 바로는 사회가 너무 위험하니까. 자신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와서 겪은 일을 자기 자식이 또 겪을까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이 겪은 상처를 아이들이 겪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깨진 도자기에 풀을 발라 다시 붙인다고 해도 금이 남아있듯이. 계약을 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사회가 어른들이 보기에 얼마나 위험해 보였을까. 작은 사회라는 학교에서도 괜히 내 비밀을 이야기했다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친구의 약속이 거짓이어서 소문이 날까 봐 조심하는데. 단지 상대를 믿을 수 있었기에 믿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았던 시절이 있다. 지금도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누군가를 잘 안 믿으려 하는지 그게 쉽지가 않다. 왜 점점 클수록 누군가를 믿는 게 어려워질까. 자꾸 믿음이라는 고리가 풀어지는 걸까. 조금만 더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누군가를, 내 주변 사람만큼은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어릴 때처럼 ‘약속!’이라며 새끼손가락을 걸 수 있었으면 좋겠다.